

『히파티아』

알렉산드리아의 히파티아는 기원 후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활동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이다. 히파티아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수 활동에 매진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히파티아가 당시 매우 드문 여성 학자였다는 점이다. 히파티아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리아의 테온은 수학자로 명망이 높았고, 알렉산드리아의 교육기관인 무세이온의 회원으로서 후진을 양성했다. 테온과 히파티아는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 점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확산되던 로마 제국에서 두 사람이 저명한 학자로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히파티아의 제자 중에는 키레네의 시네시우스와 같이 주교가 된 제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유력자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제자들도 여럿 있었다. 기독교를 믿은 제자들의 서한에서 히파티아에 대한 존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히파티아의 신앙은 그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대 로마 제국 상류층에게도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히파티아는 본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고위 관료를 비롯한 유력자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그들의 존경을 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으로 히파티아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자이며, 유력자의 중재자이자 조언자로 여겨졌다. 히파티아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계의 지역 대표자인 대주교와 동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히파티아는 어떤 인물일까? 자신에게 구혼한 제자에게 생리대를 주며, 자신의 육체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천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는 일화로 미루어 보아, 히파티아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기 보다는, 평생 제자들에게 추앙될 만큼 매력적인 성정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깁깁한 학자'에 가까운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히파티아는 교조적 윤리주의자는 아니었다. 제자에게 "정신적 폭행"을 가했다는 전술한 일화에도 불구하고, 히파티아는 자신의 신플라톤주의적 윤리관, 즉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 지성으로 일자를 추구하라는 금욕주의적 윤리관을 제자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본인은 평생을 처녀로서 그러한 윤리관에 따라 살았지만, 제자들에게는 스스로 그러한 윤리관을 고심하고 추구하라고 가르친 것으로 추정된다.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의 계승자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다. 신플라톤주의자로서 히파티아는 존재론과 윤리학을 비롯한 철학 그리고 존

재론을 포함한 형이상학의 도구 학문인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쳤다. 히파티아 사후 히파티아는 선대 수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수준 높은 주석서를 쓴 수학자로 유명했지만, 히파티아가 가르친 교과를 종합해 볼 때,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로 규정할 만하다. 히파티아는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알렉산드리아의 강연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했다.

히파티아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이는 키레네의 시네시우스이다. 이후 기독교도로서 주교로 봉직한 키레네의 시네시우스는 히파티아 문하에서 동문 수학한 벗들과 많은 서한을 남겼으며, 이 서한은 히파티아와 그 제자들에 대한 주요한 문헌이다.

히파티아가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점은 그 제자들과 알렉산드리아의 고위층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히파티아는 기독교도에게 마녀로 몰려 죽게 된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는 테살로니카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고, 385년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 서임된 테오필루스는 이교도 반대 활동을 벌였다. 이어 테오도시우스 1세는 391년 칙령을 내려 제국 내 이교 숭배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인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기독교들에 의해 이교 신전이 파괴되고 이교도들이 추방되었다. 히파티아는 이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의 분쟁에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며, 이교도들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교수 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히파티아가 고대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전파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테오필루스 재임기 히파티아의 활동은 제한되지 않았으나, 테오필루스 사후 그 조카 키릴루스가 412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로 서임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키릴루스는 보편 교회에 따르지 않는 기독교 분파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고, 유대인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도와 유대인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집트의 제독인 오레스테스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알렉산드리아 안팎에서 소요를 야기하는 키릴루스를 제어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기독교도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어졌다. 키릴루스는 오레스테스를 이교도로 비난하였고, 키릴루스를 지지하는 기독교 수사 암모니우스가 오레스테스를 공격하였다. 오레스테스는 암모니우스에게 고문을 선고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극단적 기독교도와 평민의 지지를 받는 키릴루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유력자의 지지를 받는 오레스테스 사이의 충돌은 히파티아가 살해될 때까지 이어졌다. 히파티아는 오레스테스를 지

지하는 당파의 핵심 인물로 간주되었다. 히파티아는 유력자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영향력이 없었다. 키릴루스의 지지자들은 히파티아와 대중의 유리를 이용하여 히파티아를 공격해 오레스테스 당파를 약화하고자 하였다. 히파티아에게 기독교도를 주문으로 홀려 교회에 나가지 않게 만드는 마녀라는 중상이 이어졌고, 415년 키릴루스의 추종자 중 페테르라는 인물이 무리를 끌고 히파티아를 공격해 죽인 후 그 시체를 불에 태웠다. 히파티아 사후 오레스테스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났다.

사후 히파티아는 교조적 기독교 극단 세력에 의해 죽은 고대의 마지막 지성으로 간주되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중세와 근대를 거쳐, 히파티아는 고대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신화화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 히파티아는 죽기 직전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개하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며, 극단적 기독교도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다신교도로 그려진다. 이러한 신화는 히파티아가 비기독교도라는 점에 주목하지만, 히파티아는 투철한 종교인이 아니었을 뿐더러, 종교를 이유로 탄압받지 않았다. 키릴루스는 알렉산드리아 외부에서는 이교도를 공격했지만, 알렉산드리아 내부에서는 이단자와 유태인 탄압에 골몰했다. 히파티아가 키릴루스를 추종하는 극단적 기독교 세력에게 참살된 이유는 키릴루스와 오레스테스 사이의 정치적 분쟁에 의한 바이다.